월간
메시지
2021 – 8호
토리노-발도코 9월 24
ADMA on line
Associazione di Maria Ausiliatrice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하여:
가정, 성소와 성덕

친애하는 친구들,,

우리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 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현실과 세계의 모든 지역 그룹을 위한 새로운 연합의 해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살기를 다시 시작하고, 오라토리오에서 생활하고, 안 마당에 잠시 멈추고, 축하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만나고, 기도하고, 나누고, 대화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심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께 감사드리며 여정이 어렵거나 상황이 우리의 연합 차원을 충만하게 살 수 없게 막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비춰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

올해 우리는 즉시 우리의 여정에 많은 풍요로움과 강렬함을 줄 몇 가지 이벤트와 약속의 큰 추진력과 강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선 21/22년의 양성 여정은 **"가족, 성소와 성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기쁨 출간 5년을 기해, 2022년 6월 로마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가정대회를 통하여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깊이로 우리가 "가족 정신"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교회와 일치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우리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측면과 전형적인 색채를 파악하고 심화시키며,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관심과 같이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시선을 갖게 해주는 매우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세계의 모든 ADMA, 모든 현실과 모든 그룹에 대한 공통 개요를 가진 단일 양성 제안을 생각했으며, 이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룹이 이를 사용하고 모임과 양성 시간 동안 최대한 사용하고 가치화하도록 각 지역 현실의 필요와 특수성에 따라 질을 높이고 적용하기를 초대합니다.

둘째, 올해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선종 400주년을 기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라는 총장 신부님의 스트렌나 덕분에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정신의 장엄한 특성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신심회로서 우리는 또한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예정된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의 제24차 총회를 동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녀님들을 마리아께 맡겨드리고, 우리 가운데 그들의 현존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ADMA로서 우리는 모든 지역 현실에서 그들의 총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 토리노에서 발도코의 프리마리아 ADMA의 평의회가 갱신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우리를 식별력으로 인도하시며 새 평의회가 성령의 인도 아래 형성되고 항상 신심회의 선을 위해 그리고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신 계획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지향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발도코 ADMA 회장,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ADMA 영적 활성자, 알레한드로 게바라.

2021-2022 양성 여정

가족 사랑, 성소와 성덕의 삶

가족 사랑, 성소와 성덕의 삶

친애하는 친구, 사랑하는 ADMA의 동료, 도움이신 마리아의 사랑하는 신심가, 예수님 어머니의 자녀들!

9월에 시작되는 2021-2022년 새 사목의 해를 위해 준비한 양성 여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택한 제목은 **"가족 사랑, 성소와 성덕의 삶"**입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시노드 후속 권고 **'사랑의 기쁨'** 발간 5주년을 살도록 초대한 것과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2022년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로마에서 열릴 제10차 세계가정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목자님의 부름으로 올해 5주년을 맞아 온 교회가 하나되어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단체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족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레시오 카리스마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 정신"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며, 특별히 우리가 선종400주년을 기념하려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손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총장님은 내년 스트렌나를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하여, 억지로는 아무것도"**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은 우리 대가족의 살레시오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초대입니다.

올해는 또한 "살레시오가족의 카리스마적 신원 헌장" 이 출판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현실을 안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적 순간에 많은 경우 악화되어가는 수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 대한 사랑, 마리아께 대한 사랑, 우리들의 가족, 카리스마적인 가족, 교회 가족에 대한 사랑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은 가정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양성 과정을 선택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 이러한 지평을 실천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ADMA의 모든 그룹과 마리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수년간 해 온 것처럼 하나의 양성 제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전 몇 년 동안 수행된 작업과 형제적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영적 양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머리나 생각보다 "마음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양성이 마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절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 가정의 어머니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신심회, 각 지역 ADMA 그룹이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주제는 추가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활성자들에게 경험과 의미 있는 증언, 다른 자료로 그들을 풍요롭게 하여 우리가 함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제들은 "결정적"이 아니라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개발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성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 개발을 위한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시노드 후속 사도적 권고인 사랑의 기쁨; 2015년 토리노에서 열린 제8차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도움이신 마리아의 VI 소책자 "마리아의 집에서 우리의 집으로", 2017년 총장 신부님의 스트렌나 “우리는 한 가족!”, 2021년 7월에 총장 신부님이 만든 2022년 스트렌나의 주제 발표; 그리고 로마 교구와 평신도, 가족, 생명 부서가 제10차 세계 가정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모든 이를 위해 인터넷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욱이, 올해 주제 준비를 위하여 우리는 다른 현실에서 온 살레시안들을 더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 신심회의 평신도와 가정의 협력으로도 준비되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에게 수행하도록 초대한 공동합의성을 실천하는 양성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기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제공하는 이 양성 여정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

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이들이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각자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 삶의 개인 여정에 동반하고자 하는 제안을 환영하고, 경청하고, 묵상하고, 내면화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 곧 평신도, 봉헌된 사람, 사제의 세례 조건에서 우리 모두는 읽고, 심화하고 묵상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 가정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현실의 구경꾼으로만 살지 않고 가정의 일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정들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양성 과정에서 가정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원하신 실재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이런 이유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의 결정적이고 완전한 만남을 향한 성덕의 길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소명, 아름다운 현실이며 우리 세상의 많은 이들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오묘한 특징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은 또한 일상 생활의 일부이며 상황에 따라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고통도 겪어야 하는 힘들고 지치는 순간, 복잡함과 십자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도직 현장입니다. 가정의 각 구성원은 마리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우리 집에서 가장 어린이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인 성 가정, 성 요셉과 함께 가정을 이루십니다

처음에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음과 같이 단언하는 "사랑의 기쁨"의 첫 장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1. 사랑의 기쁨,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입니다. [...] "가정에 대한 갈망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고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갈망에 대한 응답인 "가정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선포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첫 페이지(창

세 4장 참조)부터 신부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묵시 21,2.9 참조) 까지 가정과 출산, 사랑 이야기와 가정의 위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성 여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는 곳, 다른 사람의 기쁨을 즐기는 곳, 우리 몸의 평화를 찾는 곳, 우리가 조건없이 환영 받는다고 느끼는 곳, 우리가 때때로 고통받는 곳,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곳, 가정의 집인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초대를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턱을 넘어 들어가 봅시다. 그 가정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곧 자기들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와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기원,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읽는 것은 그들과 개인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력하게 불러일으키신 그 원초적 계획이 실현됩니다. “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마태 19,4). 우리는 이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의 시작에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 여정에서 우리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는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곧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1, 27). 우리는 꿈을 꾸고 창조되었지만 먼저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와 맺으신 첫 번째 관계는 사랑과 관대함의 관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현실에 다가오시기 위해 먼저 걸음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녀를 만나러 오시고, 당신의 가족과 각자를 돌보아주시는 예수님 하느님의 자세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부부, 즉 "남자와 여자"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즉, 인간 부부의 출산은 살아 있고 효과적인 "하느님 모습", 곧 하느님의 창조 활동의 가시적 표징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낳는 부부는 창조주이시며 구원

자이신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참되고 살아있는 "조각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매를 맺는 사랑은 하느님의 내적 본질을 상징합니다(창세 1.28; 9.7; 17.2-5.16; 28.3; 35.11; 48.3-4 참조).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시며, 이는 가정을 통하여 현실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를 설명하십니다. "가장 심오한 신비 안에서 우리 하느님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으시며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아버지다움과 아드님다움과 가정의 본질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가정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느님의 본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힘과 생명력이 가득한 "올리브 나무 햇순"(시편 128,3)과 같은 자녀는 부모 곁에 함께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의 토대라면, 자녀는 가정의 "살아있는 돌"과 같습니다(1베드 2,5 참조). 그래서 시편127에서는 선물인 자녀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녀를 집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던 사회생활과 상업 활동과 관련된 모습과도 연결시킵니다. (시편 127, 1.3-5 참조).

성경은 또한 가정을 자녀의 교리 교육의 자리로 여깁니다.. 이는 파스카 축제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탈출12,26-27; 신명 6,20-25 참조). 성경의 현자들이 흔히 우리에게 알려주듯 부모에게는 중대한 교육 책임이 있습니다(잠언 3,11-12; 6,20-22; 13,1; 29,17 참조).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탈출 20,12) 하는 계명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공경하여라"라는 동사는 가정과 사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를 핑계로 그러한 임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마르 7,11-13 참조).

복음은 우리에게 자녀가 가정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의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부모에게 당신을 맡기시며 그들에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루카 2,51 참조),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하느님 나라에 자신을 봉헌하고자 삶의 결단을 내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가족과 이별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십니다(마태 10,34-37; 루카 9,59-62 참조). 그러나 가족의 아름다움은 모든 성경을 특징짓는 쓰라린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의 친밀한 친교를 깨뜨리는 것은 고통, 악, 폭력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페이지를 관통하는 고통과 피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시자마자 곧바로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는 집을 방문하시고(마르 1,30-31참조) 또한, 야이로와 나자로의 집에 가시어 야이로의 딸과 나자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마르 5,22-24.35-43; 요한 11,1-44 참조).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

는 마을의 과부가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루카 7,11-15 참조).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간질 병이 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의 간청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마르9,17-27).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자캐오와 같은 세리들의 집에도 가시고(마태9,9-13; 루카 19,1-10 참조)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 찾아온 죄지은 여자에게도 말씀을 건네십니다(루카 7,36-50 참조). 예수님께서는 가정이 겪는 걱정과 갈등을 아시고 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방종한 생활을 좇아 집을 떠난 아들(루카 15,11-32 참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골치 아픈 아들들(마태 21, 28-31 참조), 폭력의 피해자가 된 아들(마르12,1-9)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부족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혼인 잔치(요한 2,1-10 참조), 손님이 오지 않는 혼인잔치(마태 22,1-10참조), 은전을 잃어버려 걱정하는 가난한 가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루카15,8-10 참조). 돈 보스코의 역사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직면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계명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주는 것을 당신 제자의 분명한 표징으로 제시 하셨습니다 (마태 22,39; 요한 13,34 참조). 사랑은 또한 자비와 용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8,1-11참조). 우리 가족 관계에서 섬세하고 존중하는 부드러움이 되는 사랑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이 가정을 남편과 아내와 그들 자녀의 손에 맡기시어 그들이 인간적 친교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친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며 교육하는 활동은 하느님의 창조 활동을 반영합니다. 가정은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읽으며 성찬의 친교에 함께 참여하여 사랑을 키워나가며 성령께서 머무시는 좀 더 완전한 성전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돈 보스코가 그의 영적 생활과 사도적 활동의 중심에 "집 주인"이라고 불렀던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 있는 신심을 두었다는 것을 압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는 그분과 동화되고 성령의 활동에 유순 하여 성 바오로와 함께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다"(필리 1,2)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갈 2:20). 그리고 사도의 다른 권고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이러한 성찰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느님의 사자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것은 당신께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면서 어려움과 반대에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조건없이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5,17이하 참조). 모든 형태의 죽음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모든 사람에게 삶과 기쁨을 전하시는 끊임없이 관대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착한 목자의 염려로 어린이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열렬한 보살핌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시기까지 항상 용서하시는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행동에 영감을 주고 인도하는 착한 목자의 모습은 살레시오 사도적 영성의 두 가지 귀중한 관점을 나타냅니다.

첫째, 주 예수님의 사도는 착한 목자께서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게 편견이나 배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관심의 중심에 두고 사랑합니다.

둘째, 사도는 자신을 제시하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초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요한 10,1-15 참조), 길을 잃은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충만한 신뢰와 희망으로 그를 찾고, 회복시키고, 충만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 주 예수님만을 항상 제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돈 보스코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전례가 제시하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나옵니다. 즉 친교와 봉사의 정신으로 마음의 회심과 그리스도인 자유에로 교육하는 성찬례와 화해의 성사를 근면하게 거행하고, 삶과 그 개인과 공동체, 내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어주는 주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합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은 모든 가정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나자렛 성 가정은 헤로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힘겹게, 심지어 매우 끔찍하게 보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날에도 쫓겨나고 무력한 많은 난민 가정들은 여전히 이러한 경험을 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가정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뵙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마태 2,11 참조). 가정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이 직면한 도전에 마리아처럼 용감하고 침착하게 맞서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루카 2,19.51 참조). 마리아께서는 모든 가정이 겪는 경험 또한 당신의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여, 가정생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

- 여러분은 올해 제안된 양성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특히 당신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꿈꾸신 당신 가족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 o 당신 가정의 구성원 각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 o 당신이 날마다 그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청하십시오.
- 당신 가정의 어려움과 각 구성원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당신의 온 가정을 받아주시고 자비로운 시선을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에서나 당신의 관대함에서도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를 알아가기

콜롬비아 ADMA

모든 ADMA ONLINE 독자들에게 보내는 애정 어린 살레시안 인사

제 이름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출신의 마리아 델 필라르 루카스 가르시아입니다. 현재 산 페드로 클라베르- 보고타 관구의 ADMA회장, 보고타와 라 사바나의 ADMA 그룹들의 조정자입니다. 직업 치료사이며 레오노르 데 루카스 재단의 원장으로, 저는 장애인과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치료와 고용 과정을 개발하여 운동, 인지, 사회 및 직업 기술을 강화하고 자율성, 소득 창출 그리고 그들의 삶과 가족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업 정신과 고용 가능성 활동을 창출합니다..

저는 21년 전 어머니가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면서 경험한 개인적인 상황으로 ADMA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ADMA와 협력자회 회원이었던 어머니는 신앙의 여인, 살레시아나, 가난한 이들의 종, 살레시안들에게 위대한 사도직을 가져온 분으로, 살레시오 신학자들의 소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목 활동을 지원했으며 특히 보고타 북부의 취약한 지역에서 관구 ADMA 그룹 창설을 도왔습니다.

성녀 마리아 마자렐로 ADMA 센터

저는 살레시오 공동체와 ADMA에서 자신의 모든 사심이 없는 일, 관대함, 봉사의 10년을 기록했던 저의 어

머니 레오노르 데 루카스의 모든 일을 위해 ADMA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억을 영속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21년전 모든 직책을 행사할 수 있는 ADMA 관구 평의회의 평의원으로 들어가 신심회 일원으로 시작하였으며 이제 3년 반 전에 세 번째 연속해서 북쪽 언덕 위에 있는 보고타의 여러 ADMA 그룹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룹들의 조직, 예수님과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열정과 사랑, 본당이나 살레시안들이 현존하는 곳 그리고 신학자들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ADMA가 그들의 사목 과정을 지원하는 곳에서 매우 잘 뿌리를 내리고 수행되는 신심 행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타 외곽의 다른 그룹들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봉사하고 싶은 열망이 커서 ADMA와 함께하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보고타의 산타 마리아 마자렐로ADMA 센터에 소속되고, 제 어머니가 소속했던 ADMA그룹의 일원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두 개의 관구가 있습니다. 즉, 막달레나 강의 자연 경계로 국가의 서쪽을 덮는 산 루이스 벨트란-메델린 관구와 동일한 자연 경계로 동쪽을 덮고 있는 산 페드로 클라베르-보고타 관구입니다.

산 페드로 클라베르-보고타 관구 수준에서 ADMA 그룹들은 아래에 나열된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ADMA 센터 도시 회원 수:

보고타 10센터 170 - 모스케라 1센터 10 - 치아 1센터 40 - 부카라망가 4센터 60 - 쿠쿠타 1센터 120 - 팜플로나 1센터 30 - 툰자1센터 14 - 두이타마17센터 374 - 콘트라타지오네 1센터 15 – 바랑카베르메자 1센터 30 과체네 1센터 35 - 네이바1센터 12. 센터 수 40, 회원 수 910.

살레시오회가 있는 모든 도시에는 ADMA 센터가 있으며, 살레시오 카리스마를 점차 알게 되면 도시의 여러 본당으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보야차 지역에 위치한 도시 두이타마에는 가장 많은 수의 ADMA 센터(17개)가 있으며, 그 중 한 곳에서만 살레시안의 영적 지도를 받습니다. 다른 16개 센터에는 살레시오 영성을 식별하고 영적으로 조언하고 그들에게 양성을 제공하며 신심업과 각자의 사도직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구 사제가 동반합니다.

ADMA 관구 평의회의 지역 방문에서 두이타마와 툰자의 ADMA 그룹

산 피에트로 클라베르-보고타 관구의 ADMA 그룹에는 달성된 결과를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달성된 결과는 조직, 봉사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헌신, 집단 기도인 신심업의 열정과 꾸준함, 묵주기도, 교회- 살레시오성- 인간적이고 사도적인 양성의 주제에 관한 양성의 강한 순간, 상호 작용을 허용하는 살레시오가족의 그룹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살레시오 생활, 그들의 사명을 존중하면서 다른 그룹의 경험을 공유, 그들이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도직 보유, 이웃에게 봉사하기, 펼치는 활동을 통해 살레시오 카리스마 공유, 돈 보스코가 우리에게 맡기고 사회가 구원에 필요한 우리 사명의 기둥인, 성체 안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살고 전달하기 입니다.

콜롬비아에서 ADMA의 조직은 SDB 루뱅 다리오 자라밀로가 주재하는 살레시오가족의 관구 대표단이 감독하고, 측면에는 SDB 호세 아르카디오 리아뇨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 카리스마와 가용성으로, 살레시오 주제와 교회 문헌에 대해 조언하고 훈련하며 모임, 대회 및 피정에서 그의 현존으로 지식과 사목 활성화로 우리를 동반합니다.

모든 ADMA 센터는 ADMA 관구 평의회가 조정하며, 그 구성원들(회장, 부회장, 서기, 재무 및 4명의 평의원)은 4년마다 두 관구의 도시 중 한 도시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의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이 관구 평의회는 2개월마다 보고타에서 대면으로 만나 전체 양성 과정을 안내하고 활동을 계획하며 관련된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그룹에서 요청한 상황들을 제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관구 평의회는 그의 연례 프로그램 내에서 지역별 ADMA 센터를 방문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알고, 사도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인간적, 살레시오적, 사도적 양성 또는 그룹이 제안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다른 주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도시의 각 ADMA 센터들은 살레시오회 집이나 교구의 본당 또는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사목 활동에 참여합니다. 일부는 성체 봉사자, 복사 또는 교회 그룹의 일원입니다. ADMA 규정에 따라 ADMA 센터는 지도 평의회와 모든 회원이 일부가 되는 예배, 재정, 사회, 양성 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월 2회 또는 1회 모입니다. 기도, 묵주기도, 양성 활동, 사회적 관계가 수립되는 다양성과 나눔으로 구성된 하루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본당이나 한 회원의 집에서 만납니다.

보고타 관구의 ADMA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도직과 관련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일합니다.

- ADMA는 구체적인 사도직 활동을 통해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복음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돈 보스코를,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젊은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성인으로 알리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도움이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전파합니다.

.

- 우리는 지역 사회 식당에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리고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과 같은 다양한 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음식에 기여하고, 점심을 제공하고, 여가 활동을 수행합니다.

본당에서 ADMA는 묵주기도, 마리아 성지와 도움이신 마리아를 모시는 집에도 순례, 성체 봉사자 지원, 성당 정리와 본당의 필요를 위해 경제적 기여 등을 조직합니다

- 살레시안 사업과 협력하는 아드마 파트너:

의사와 전문의들이 본당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에게 임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그들의 회복을 위해 약을 기부하는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가격을 제공 합니다.

- 매달 24일, 특히 5월 24일은 도움이신 마리아를 기리는 대축일이자, 회원으로서의 서약을 갱신하고 준비의 해를 마친 지원자들의 서약이 실현되는 축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보고타 ADMA 센터

- 관구 평의회와 협력하여 우리는 살레시오 영성의 날, 양성자 모임, 살레시오가족에 속한 다른 그룹과의 피정, 살레시오성 과정 그리고 살레시안 모임이 있는 곳에 ADMA는 더 많이 참가하는 그룹입니다

.요한 자이로 고메스 루아는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의 작업을 굳건히 하고 개인과 우리 단체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관구 모임, 전국 대회, 미사, 피정, 영적 상담에 참여하고 활기를 띠는 그룹으로 우리의 일을 강화하였습니다.

한 동안, 콜롬비아에서 살레시오가족에 속하는 12개의 단체, 즉 SDB, FMA, SSCC, 남자 동창회, 여자 동창회, 돈 보스코 자원봉사자, 돈 보스코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ADS, 루이스 바리아라 세속 운동, 성심의 딸 수도회, 맘마 말가리타회 등 다양한 대표자들을 통해 통합되고 명확한 작업이 수행되었는데, 거기서 여러 그룹과 함께 조직되는 행사에 ADMA는 참여도가 높고 그 현존이 매우 소중하고 친밀한 그룹이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 평의회 모임

미래를 위한 투영으로서, 우리는 영구적인 활성화로 ADMA 그룹을 계속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룹을 방문하고, 살레시오성의 주제, 인간화 및 교회 문헌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며, 그룹 작업의 중요한 요소인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상의 순간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ADMA 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과 더 친밀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행동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 세계 ADMA에 대한 우리의 요청은 젊은이와 함께한 ADMA 그룹의 경험을 더 잘 아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명 안에서 가장 궁핍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단체의 힘과 풍요로움이 되는 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ADMA에 헌정된 이 기사를 통해 우리의 개인, 공동체, 가족과 콜롬비아 살레시안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ADMA에 바쳐진 이 기사를 통해 우리의 개인, 공동체, 가족과 콜롬비아 살레시안 경험이 돈 보스코가 설립한 ADMA 그룹으로서 이 위대한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에 대한 증거와 영성이 우리를 진동 시키고 항상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살레시안 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직을 통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일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반영됩니다

살레시안의 형제적 애정으로

콜롬비아
성베드로클라베르-보고타 관구
ADMA 회장
마리아 델 필라르 루카스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 규정
우리의 정체성을 심화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제4조 – 회원들의 개인적인 의무(둘째 부분)

우리가 심화하기 시작한 조항은 규정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며 경청하고 내면화하는 자세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돈 보스코는 이미 "신심 업"에 대한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풀이하였고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한 마리아 다운 표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의 매월 24일 기념과 9일기도, 5월 24일 대축일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룹의 정신과 친교 안에서 일치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표시된 이 시기에 직면하는 민감한 가족, 교육, 사회적 상황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이러한 어려움에 헌신할수록 세상은 우리가 돈 보스코 성모님의 관상-활동적이고 신심 깊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종교심은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사도-교육-자선 활동으로 활기차게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환영과 연대의 그리스도인 환경을 가꾸면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본받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마리아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환대와 경청, 구체적인 도움과 관대하게 순응하는 자세로 인도하시도록 합시다.

"가정 교회"의 전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가정 교회를 통해 마리아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이나 공동체를 방문하시고, 기도 안에 일치의 중요성, 즉 많은 상처를 치유하고 힘과 희망을 심어주는 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가족 연대기

https://www.infoans.org/sezioni/foto-notizie/item/13407-timor-est-l-adma-nazionale-si-prepara-al-congresso-regionale

https://www.infoans.org/sezioni/foto-notizie/item/13449-isole-salomone-primo-centro-adma-nelle-isole-salomone

https://www.infoans.org/sezioni/foto-notizie/item/13485-brasile-iii-incontro-dei-consigli-ispettoriali-dell-adma-del-brasile

https://www.infoans.org/sezioni/foto-notizie/item/13501-pakistan-nuovo-gruppo-dell-adma-a-lahore

이 월간지는 다음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www.admadonbosco.org

당신의 모든 의사소통은 아래 e-mail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animatore.spirituale@admadonbosco.org